

[보도자료] 쿠팡이츠서비스, 장마철 배달 안전 캠페인 실시 “배달 파트너 안전 최우선”

2026. 7. 10.



- 집중호우·태풍 등 장마철 기상 악화 대비 안전 대응 체계 상시 운영
- 위험 상황 시 운행 중단 안내부터 안전문자 발송·배달 제한구역 운영까지 예방 활동 강화

2026. 07. 10. 서울 - 쿠팡이츠서비스(CES)가 장마철 등 기상 변화에도 배달파트너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.

쿠팡이츠는 장마철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해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유하고, 안전 지침을 안내하고 위험 지역 운영을 관리하는 등 배달 안전 캠페인을 상시 실시한다. 급격한 기상 악화 등 안전 상황 발생 시, 배달파트너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. 이 같은 대응 체계는 폭염·폭설 등 다양한 기상 상황에도 적용된다.

악천후 및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배달파트너에게 즉각적으로 안전문자를 발송해 관련 상황을 알리고 대응 안전수칙을 안내한다. 안내 내용에는 △발생 지역 정보 △감속 운행 및 안전거리 확보 △침수 지역 및 장애물 구간 우회 등이 포함된다.

이와 함께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침수 우려 지역과 위험 구간을 점검하고, 필요 시 배달 제한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.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 메인 화면에도 기상 상황과 안전 운행 수칙을 안내해 배달파트너가 관련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사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. 쿠팡이츠서비스는 2023년부터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빗길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 전문가의 타이어 점검을 비롯해 제동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 점검을 지원해왔다. 또한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력해 타이어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휴를 맺은 전국 150여개 정비센터에서 7월까지 타이어를 30% 할인가에 제공한다.

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“배달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